



가을, 북녘
즈러밧고 **백** 두 산 가는길

최성민 · 한겨레신문 문화생활부장



언제려나 싶더니 이제 금강산 가는 길은 자동차를 타고 하루 일정으로 단축되었다. 머지않아 우리는 백두산도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가게 될 것이다. 백두산은 지금까지는 중국땅을 거쳐 '장백산'이라는 이름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다. 북녘땅을 즈러밧고 우리의 이름으로 백두산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이 무렵 가을과 겨울이 함께 있는 백두산을 미리 지면으로 가보자.

필자는 남북정상회담 결실의 하나로 지난 1999년 9월 22일부터 6박7일의 일정으로 109명의 백두산관광단과 함께 서울에서 평양 순안공항-백두산 삼지연 공항을 통해 50년 만에 최초로 북녘땅을 밟고 백두산에 다녀왔다. 이 방문은 분단 50년사에서 대규모의 남쪽 일반인들이 관광목적으로 북녘땅을 밟은 첫 번째 사건이자 백두산 밀영 '혁명사적지' 등 말로만 들던 북쪽의 모습을 깊게 둘러본 획기적 경험이었다.

북쪽 관계자들과 주민들은 방북단을 최대의 예의와 정성으로 대해 주었고, 방문단은 예상을 뒤엎는 북쪽의 실제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북녘 사람들의 밝은 모습과 일체감, 자연환경 보존 노력, 통일열망 등에 감동과 경탄을 자아냈다.

백두산 관광단이 첫발을 디딘 평양 순안공항(오후 2시 5분)과 백두산 관문 삼지연공항(오후 4시 50분)은 남쪽이나 외국 공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평온하고 적막하기까지 했다.

관광단은 이튿날 새벽 4시 이번 일정의 최대 목적인 백두산 천지를 향했다. 숙소인 소백수초대소에서 천지까지는 차로(시속 30~40km) 1시간 20분 거리. 차안에서는 “내가 생전에 우리 땅으로 백두산을 오르게 될 줄은 몰랐다.” “꿈인 것 같아요!” 등 흥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북쪽 안내원들은 그 사이 백두산의 기후와 생태, 그리고 주변 마을들의 삶



에 관해 친구 대하듯 설명해 주었다.

백두산 가는 길엔 여기가 우리 땅인가 눈을 의심케 하는 명물이 있다. 밀림을 일직선으로 관통하는 숲속도로가 그것이다. 차는 끝이 보이지 않는 ‘삼림욕길’을 핸들을 꺾지 않고 10~20분씩 달린다. 20~50년 된 잎갈나무(낙엽송의 일종, ‘잎을 간다’는 뜻)가 쪽쪽 뻗어 올라 하늘을 가린 그 길 끄트머리 어딘가에 백두산은 지금쯤 흰 설봉으로 솟아있을 것이다. 청량하기 이를 데 없는 공기 속에 담겨진 향긋한 송진 냄새는 북쪽의 자연이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는지를 가늠케 하면서 남쪽 사람들에게겐 꿈조차 꿀 수 없는 부러움으로 다가온다. 북쪽 안내원의 설명이 곁들여 진다.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께서서는 21세기를 자연과 환경의 세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넘쳐나는 묘향산의 금광까지도 파내지 못하게 하셨다.” 식량난 속에서도 개간유혹을 물리치고 이 광활한 대지를 ‘숲의 낙원’으로 지켜내는 북쪽 사람들의 애씀에 감탄사와 감사의 목소리가 차안에서 들린다. 이 도로는 ‘갑무경비도로’라 불린다. 삼지연에서 100m쯤 떨어져 직선으로 뻗어있는 연장 120km의 백두산 오름길로서, 일제가 국경경비를 강화할 목적으로 1937년부터 1939년 5월초까지 닦아놓은 갑산-무산 사이 군용도로였다.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일제의 도로 개통식 전날 말끔히 닦고 쓸어 개미 한 마리 얼씬 하지 않는 이 길을 대낮에 전사들을 거느리고 보무도 당당하게 앞장서 걸으셨다.”는 안내원의 설명엔 민족적 자부심과 용기가 응골져 맺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잎갈나무숲은 백두산 허리까지 이어진다. 숲과 그 윗쪽 황무지가 이어지는 경계지점에서 가끔 호랑이와 곰이 나타나 주민들에게 주의보가 내린다고 안내원이 귀뜸해 준다.

황무지에 들어서면서 자동차는 비틀거리기 시작



한다. 워낙 거대한 산이기에 오름길은 완만하다. 그래서 차가 험겨워 하는 것은 ‘조종의 산’ 백두의 위력에 저어해 하는 몸짓이라 생각하면 여정은 한껏 성스러워진다. 그 성스러움은 해가 돈을 무렵 절정에 이른다. 여명의 백두산은 무한대의 적막과 극치의 고독 세상이 되어 무서움으로 엄습해 온다. 그 별천지에서 사람들은 작고 텅 비워진 그릇이 되어 백두정기 담아가 전할 곳을 그리게 된다. 이날 백두산 오름에서는 날씨가 해돋이 보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일행은 삭도를 타고 천지 물가로 내려가 ‘천지산천어’ 죽으로 아침을 먹었다. 그리고 북의 안내원 및 백두산 강사들과 어울려 천지 물이 마르도록 열내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자주, 민주〉를 불렀다. 북쪽 리히옥 강사, 김영성 민화협 부위원장, 김광일 조선중앙통신 기자, 남쪽 지은희 여단협 대표, 조홍규 관광공사 사장, 한완상 상시대 총장의 눈시울은 너나 없이 젖어 있었다.

백두산을 떠나는 27일 새벽 4시 기자단은 백두해돋이 취재를 재시도했다. 이날 북쪽 기자들은 영하 10도의 추위와 초속 3~5m의 거센 바람에도 아랑곳 않고 남쪽 기자들의 텔레비전 카메라 받침대 등 중장비를 들고 앞장서 가파른 길을 뛰었다. 그날 ‘고난의 행군’길 남북의 뭉침에 감복해서인지 해는 백두산 마루에 온화하고 찬란한 서광을 무한히 비추 주었다. ☁

〈백두산〉

당시 백두산 등지에서 남쪽에 잘못 알려진 백두산 자료를 몇 가지 얻을 수 있었다. 백두산의 높이는 남쪽 교과서에서 말하는 2천7백44m보다 6m 더 높은 2천7백50m로 북쪽의 공식 기록에 나와 있다. 백두산 일대의 지각변동이 심해 최고봉인 장군봉의 높이가 가끔 변한다고 하는데 이는 최근에 잦아졌다고 한다.

백두산의 기후는 하루에도 여러 번 초 단위로 바뀐다. 백두산 마루에서 봄이 시작되는 시기는 5월말이며 여름에도 백두산의 기온은 섭씨 20도에 이르지 못한다. 백두산마루에서는 겨울철이 8개월이나 계속된다. 눈이 쌓이는 두께는 1.5~2m나 된다. 그래서 백두산 일대의 집들은 지붕이 가파르고 문이 모두 안으로 열게 되어있다. 삼지연은 백두산의 눈 녹은 물로 이뤄진 것으로 백두산과 더불어 유럽 알프스 눈나라의 풍광에 못지않게 아름답다. 평양에서 백두산까지는 3백85km, 기차로는 15시간 안팎, 비행기로는 삼지연공항까지 1시간 걸린다. 장군봉까지도 차가 올라갈 수 있다.

천지의 물면 해발높이는 2천2백57m, 천지 둘레길이는 14.4km, 최대 너비는 3.55km, 최대 깊이 384m이다. 천지에는 지난 84년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천지산천어로 이름지어 방류하도록 한 산천어가 현재 80만 마리 가량으로 불어나 살고 있다.